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내 삶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 55)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8/ 18(일) 연중 제 20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8/ 20(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  
▶8/ 25(일) 연중 제 21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은빛 모임 강좌 예비 모임  
9/1(일) 미사 후 친교실  
문의: 교육 분과장 이동규 프란치스코

◎성모회 단풍관광  
일시: 10/5(토) 7 시 성당 집합, 7:30 출발  
장소: 마드랜드 성지  
회비: 추후 결정  
예상 정원 인원: 50 명  
문의: 성모회장 우경숙 율리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30-50 대 형제 자매님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신 가정은 아이동반도 가능합니다.  
▶8/31(토) 11:00 친교실, 문의: 김의수 안드레아, 박규혜 카타리나

◎유아세례  
다음 주 미사 시작 전 이로운(이사악)의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2024-2025 주일학교 안내  
- 주일학교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는 성당 정문앞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강예정일 : 9 월 15 일  
대상 : 유치부 - 6 학년  
문의 : 박혜영 수산나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 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의 : 박혜영 수산나

◎ 해밀톤 성 유대철 본당 30 주년 축하 골프대회  
▶일정및 장소: 9/28(토) 12:00 South Brook GC  
문의: 행사분과장 김한옥 에릭 (289-880-3175)

공소 소식

▶8/25 (일) -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유아세례식 안내  
\* 알시 - 8 월 25 일(일)  
\* 대상자 - 최윤성 레오 / 최로아 루시아  
▶이번주 간식은 김은정 마르가리따 자매님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8 월 공소 신자 축일자. 축하합니다.  
(8/15) 정영숙 마리아  
(8/18) 김명숙 헬레나  
(8/21) 이춘혜 그레이스

단체 소식

▶2024 캐나다 한인 남성 제 43 차 꾸르실료 주말  
수강자 접수 완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꾸르실료 주말교육에 참여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꾸리아 야외 행사  
일시 및 장소: 8 월 24(토) ,12 시 본당 성모동산

친교 식사

7,8 월은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미사 후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05 명)

주일헌금

\$1075

교무금

\$18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20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8 월 본당 세례 축일자 (38 명)  
8/ 7 클라우디아(윤은주)  
8/ 8 도니미코(한성준)  
8/11 글라라(우미란, 최경애, 김영신, 임예천, 송혜란, 정명자)  
수산나(주수원, 장순태, 박혜영)  
8/12 요안나(김정해)  
8/15 스텔라(이경지, 김영미, 박양숙, 김승희)  
마리 스텔라(강서윤, 나윤희), 쉐리나( 김지유)  
8/16 스테파노(김춘삼, 윤철)  
8/18 헬레나(김경희, 김나은, 조은자)  
8/20 사무엘(민명식,신명철)  
8/21 그라시아(신민영)  
8/23 로사(류정옥, 김용순, 하대교, 고예진, 김영미)  
8/27 모니카(최광수, 이은자, 함영자), 요한(전대원)  
8/28 아오스딩(우금환)  
8/29 사비나 (김양월)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8/18	김성수 베드로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한욱 에릭 임연신 비아
8/25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두원 스테파노 이준서 사도요한	1 독서: 이인선 쯔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참된 양식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란

이강수 미카엘 신부  
가르멜 수녀회 상주

마더 데레사께서 “많은 활동에 피곤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아침 미사 때에 영한 성체의 힘으로 살아요. 내가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데 내가 힘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흔히 살아갈 힘을 ‘무엇’ 혹은 ‘어디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따라 돈이나 쾌락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성공을 향한 집념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치있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힘을 얻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사랑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는 가장 큰 힘이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나누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으며 변화무쌍한 것이라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요한 6,57)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사셨기에 하느님이 당신 삶의 의미였고 이유였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여 따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듯이 우리 또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신 당신을 먹고, 당신을 먹음으로써,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삶으로써 우리 또한 당신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아무리 좋은 성서적 가르침이나 사목적 권고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신앙 사이를 오가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속을 쫓아 살면서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이중적 삶의 태도는 분명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찢어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나눠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20 주일 (2024. 8. 18)

제 1 독서 잠언의 말씀입니다.9,1-6  
화답송 시편 34(33),2-3.10-11.12-13.14-15(◎ 9 ㄴ)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15 - 20

복음 환호송 요한 6,56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6. 51-58